

2026년 1/4분기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

< 요약 >

- '26년 1/4분기 경기도 취업자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1만3천명(0.2%)으로 지난 4/4분기(7천명, 0.1%)와 비슷한 낮은 수준(전국은 18.3만명, 0.6% 증가)
 - 그러나 건설, 도소매·숙박음식, 전기·운수·통신·금융 등 내수 부문에서는 경기도가 전국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를 기록
 - 1/4분기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가 부진한 주요 원인은 두 가지임. 중국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한 경기도 제조업의 취업자가 5만4천명 감소하여 전국(Δ 2만7천명)의 2배에 달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작년 내수 경기가 비교적 양호했던 기저효과로 금년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데 기인함
 - 1/4분기 경기도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년 동기(4.8%) 대비 8.1%로 대폭 상승(전국은 6.8%→7.4%)하였으나, 이는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실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지된 저실업 기조가 중단된 상태
- 다만, 청년실업 증가 원인을 인공지능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1

거시경제 경기상황

- '26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전년 동기 대비 3.6%)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
 - 전기비 경제성장률은 '25년 3/4분기에 1.3%로 그 이전 4분기 동안의 제로성장을 탈피하고 회복세로 전환된 이후 4/4분기에는 $\Delta 0.2\%$ 로 주춤하였으나, '26년 1/4분기에 다시 전기비 1.7%(전년비 3.6%)로 성장하여 경기부진을 탈출
 - 1/4분기의 급성장은 수출의 전분기 대비 5.1%(전년비 10.3%)라는 높은 성장에 의한 것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간소비도 전분기 대비 0.5%(전년비 2.6%)의 회복세를 지속

<표 1-1> 경제성장률 (계절조정 전기비 및 전년 동기비)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202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계절조정 전기비	0.1	0.1	-0.2	0.7	1.3	-0.2	1.7
전년 동분기 대비	1.4	1.1	0.0	0.6	1.8	1.6	3.6

자료: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4.23.

- '26년 1/4분기에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전분기 대비 3.9% 성장으로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전분기 대비 0.5%(전년비 2.6%) 성장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여 경제의 성장 개선 추세가 지속됨
 - 수출은 '25년 2/4분기와 3/4분기의 높은 성장 이후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Delta 1.7\%$ 로 성장세가 일시 후퇴하였으나, '26년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5.1%(전년비 10.3%)로 다시 대폭 성장으로 반전
 - 1/4분기 수출 증가는 전체 수출의 약 40%인 반도체(328.3억 달러, 151.4% 성장) 수출의 대폭 증가에 기인
 -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도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세에서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Delta 1.5\%$ 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26년 1/4분기에 다시 전분기 대비 3.9%(전년비 6.4%) 성장하여 빠른 성장세로 복귀

- 건설업도 4/4분기의 전분기 대비 $\Delta 4.5\%$ 의 침체를 탈피하여 전분기 대비 3.9% 성장으로 회복되었으나 전년비로는 여전히 $\Delta 3.6\%$ 의 감소세
- 민간소비는 '25년 3/4분기 전기비 1.3% 성장으로 회복세로 전환된 이후, 4/4분기 (0.3%)에 이어 '26년 1/4분기에도 전기비 0.5% 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지속하였고, 전년비로는 2.6% 성장하여 완전한 회복 흐름을 보임
- 이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도 3/4분기의 전분기 대비 1.4%의 회복 이후, 4/4분기 0.6%, '26년 1/4분기 0.4% 성장으로 회복세를 유지하여 전년비로는 2.6% 성장으로 회복세를 지속

<표 1-2> 계절조정 전기비 분기별 성장률 (실질)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202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국내총생산(GDP)	0.1	0.1	-0.2	0.7	1.3	-0.2	1.7
민간소비	0.4	0.2	-0.1	0.5	1.3	0.3	0.5
수출	0.0	0.6	-0.6	4.5	2.1	-1.7	5.1
제조업	0.0	0.1	-0.6	2.5	1.5	-1.5	3.9
건설업	-3.0	-4.4	-0.4	-3.6	0.7	-4.5	3.9
서비스업	0.4	0.3	-0.2	0.8	1.4	0.6	0.4

자료: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4.23.

<표 1-3> 전년 동분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 (실질)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202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국내총생산(GDP)	1.4	1.1	0.0	0.6	1.8	1.6	3.6
민간소비	1.3	1.1	0.6	0.9	1.9	1.9	2.6
수출	6.4	3.5	1.5	4.5	6.6	4.3	10.3
제조업	3.5	2.0	0.4	2.1	3.6	1.9	6.4
건설업	-6.5	-6.9	-12.5	-10.9	-7.5	-7.7	-3.6
서비스업	1.4	1.5	0.7	1.3	2.3	2.7	3.3

자료: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6.4.23.

- '26년 1/4분기 취업자 증가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이전 분기의 추세가 이어져, 전국 취업자는 4/4분기(전년비 19만5천명 증가)와 비슷한 규모인 18만3천명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4/4분기(전년비 7천명)와 비슷한 1만3천명 증가<표 2-1>
- 전국 취업자 전년비 증가율은 '26년 1/4분기 0.6%로 지난 3/4분기의 0.8%, 4/4분기의 0.7%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
- 경기도의 '26년 1/4분기 취업자 증가율 역시 0.2%로 지난 3/4분기 0.0%, 4/4분기 0.1%에 이어 완만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 취업자 증가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분기에 7.1%로 저조한 수준 유지

<표 2-1> 전국과 경기도 취업자 증가폭 (전년 동분기 대비)

(단위: 천 명)

구분	2024		2025				2026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경기도	96	45	126	94	-3	7	13
전국	146	52	155	207	217	195	183
경기도/전국 (%)	65.8	86.5	81.3	45.4	-1.4	3.6	7.1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폭은 작년 4/4분기 7천명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1만3천명에 불과하여 매분기 약 20만명 증가하고 있는 전국에 비하여 매우 부진한데, 그 이유는 첫째, 경기도에서는 큰 폭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둘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 전국은 약 25만명 증가하였으나 경기도는 감소
- '26년 1/4분기 경기도는 건설, 도소매·숙박음식, 전기·운수·통신·금융 등 내수산업에서는 취업자 증가가 전국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제조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취업자 증가율을 기록
- 제조업에서 경기도는 금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만4천명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 합계인 2만7천명의 2배에 달하는 규모

- 전국과 경기도의 제조업 고용감소 양상이 다른 것은 산업 구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등 중·저기술 산업비중이 높는데 이 산업은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
 - 반도체는 경기도의 매우 중요한 제조업이며 활황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작음
- 전국은 1/4분기에도 보건복지업에서 25.5만명(전년비 8.5%)이라는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이어지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체로 24.9만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2.4만명 감소
-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업 경기도 취업자 증가는 '25년 하반기(10월) 기준 4.9만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던 만큼, 1/4분기에도 일정 수준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의 1/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증가 부진은 전문과학기술, 교육, 개인서비스 등에서 타 시도 대비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경기도의 경우 '25년도 내수 부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업종의 취업자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됨

<표 2-2> 산업별 취업자: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산업별		2024		2025				2026
		3/4	4/4	1/4	2/4	3/4	4/4	1/4
전 국	전산업	146	52	155	207	217	195	183
	제조업	-31	-75	-81	-91	-67	-51	-27
	건설업	-89	-115	-173	-118	-102	-106	-26
	도소매·숙박음식	-45	-89	-14	-27	-1	26	-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48	229	345	455	469	352	249
	전기·운수·통신·금융	201	125	104	124	53	99	76
경 기	전산업	96	45	126	94	-3	7	13
	제조업	-54	-47	-22	-33	-53	-49	-54
	건설업	-18	-44	-60	-32	-20	-10	36
	도소매·숙박음식	69	52	65	25	19	38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9	48	102	130	82	17	-24
	전기·운수·통신·금융	63	41	61	61	14	51	53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1) 제조업

-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작년 2/4분기 이후 점차 축소되어 금년 1/4분기에는 △2.7만명에 머물렀으나,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축소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1/4분기에도 △5.4만명 감소
-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전년비)는 ('25.2/4) △9.1만 → (3/4) △6.7만 → (4/4) △5.1만 → ('26.1/4) △2.7만명으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 경기도의 제조업 취업자는 ('25.3/4) △5.3만명, (4/4) △4.9만명에 이어 ('26. 1/4) △5.4만명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

<표 3-1> 분기별 시도별 제조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202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국	48	-31	-75	-81	-91	-67	-51	-27
서울	41	-31	-83	-111	-130	-49	-7	15
경기도	-48	-54	-47	-22	-33	-53	-49	-54
경남	45	40	21	16	15	35	24	23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에서 지역별 차이가 큰 이유는 지역별로 제조업 업종 구성이 서로 다른데 업종별로 경기 양상에서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임¹⁾
-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남은 '24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서울의 제조업은 섬유, 의복 중심인데 작년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기록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증가로 반전
- 반면 경기도의 비중이 크며 취업자가 많은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1) '25년 4/4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전년비, %): 제조업 전체(1.9), 컴퓨터·전자(8.0), 운송장비(1.6), 금속가공(-2.5), 기계 및 장비(-3.2)

등 산업에서는 중국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감소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표 3-2> '26년 1/4분기 품목별 수입액, 수출액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일반기계· 장비	사무용기계· 자동 자료처리장치	통신· 녹음기기
수입액(%)	28.2	12.8	7.7	39.7	57.3
수출액(%)	-0.2	-8.0	-6.8	227.7	164.5

자료: 한국무역협회, 「SITC에의한무역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 경기도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23년3월부터 '26년3월까지 3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 제조업에서는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플라스틱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경기도의 장치·기계·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등 생산직의 감소가 각각 23개월, 14개월이란 장기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원인 역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에 있음

2) 건설업

- 금년 1/4분기 전국 건설업은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전년비 △2만6천명(△1.4%)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취업자 감소세가 3.6만명(6.7%) 증가로 반전
- 전국 건설업은 극심한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취업자수는 작년도에 이미 크게 감소한 관계로 금년 1/4분기에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
- 경기도 건설업은 작년도 취업자 감소폭도 크지 않았으며 1/4분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추세를 보임
 -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 경기는 지역별로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음

<표 3-3> 분기별 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202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국	-36	-89	-115	-173	-118	-102	-106	-26
(전년비, %)	-1.7	-4.2	-5.3	-8.3	-5.7	-5.0	-5.2	-1.4
경기도	22	-18	-44	-60	-32	-20	-10	36
(전년비, %)	3.8	-3.0	-6.9	-10.0	-5.3	-3.4	-1.7	6.7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 전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여 1/4분기에도 감소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전국보다 양호하여 증가세를 지속
 - 전국 도소매업 취업자는 '24년 2/4분기 이후 약 1년간 크게 감소한 이후 작년 2/4분기에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민간소비 회복세를 반영
 - 도소매업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는 산업인데, 작년 2/4분기 이후 완만하나마 취업자 증가세인 것은 민간소비 회복을 반영함
 - 전국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작년 2/4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가 금년 1/4분기에 다시 감소폭이 △1만5천명으로 소폭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회식 감소 등 소비자 선호의 변화로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업에 대한 수요는 감소 추세를 감안할 필요 있음
-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전국 추이와는 달리 '24년 이후 큰 침체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1/4분기에도 증가세가 지속
 - 경기도는 전국 추이와 달리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에도 큰 내수 침체를 겪지 않고 양호한 내수 경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표 3-4> 도소매·숙박음식업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2026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국 도소매·숙박음식	-2	-45	-89	-14	-27	-1	26	-6
전국 도소매업	-54	-74	-111	-60	8	13	34	9
전국 숙박음식점	52	28	21	46	-34	-15	-7	-15
경기 도소매·숙박음식	93	69	52	65	25	19	38	22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 금년 1/4분기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는 7만6천명(2.0%)으로, 작년 4/4분기(2.7%)와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는데, 산업별로는 특히 운수·창고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어 내수 회복을 반영
- 운수·창고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금년 1/4분기 전년기 증가는 전분기(2.5%, 4.2만명)에서 확대된 4.5%(7.6만명)
-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이전에는 큰 폭 증가하였으나 '25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력 조정이 그 원인인지의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함
- ※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인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겨레, 2026.3.18.)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4절 청년실업에서 추가 설명함
- 금융·보험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 4/4분기 4.6%에서 1/4분기 2.0%로 하락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

<표 3-5>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2026	비중*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	3.8	5.7	3.5	2.9	3.4	1.4	2.7	2.0	13.1
전기·가스	9.6	-2.2	-3.3	-4.2	3.3	11.1	12.4	4.3	0.3
운수·창고	3.0	4.8	2.3	-0.2	0.6	0.8	2.5	4.5	6.0
정보·통신	6.2	9.2	6.0	6.4	4.2	-0.4	0.7	-1.7	4.0
금융·보험	1.7	3.7	3.7	5.6	8.5	4.4	4.6	2.0	2.8
경기 전기·운수·통신·금융	4.0	6.3	4.1	6.0	5.9	1.3	4.9	4.9	14.0

* 전산업 취업자 대비(%), '25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역시 금년 1/4분기 4.9% (5.3만명) 증가하여 지난 4/4분기의 높은 증가세(4.9%, 5.1만명)를 지속

- 경기도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큰데, 두 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에서 1/4분기에 지난 4/4분기보다 낮으므로 경기도에서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
 - 정보·통신업에서 전국 취업자의 40.9%는 서울, 35.5%는 경기도이며, 금융·보험업에서는 서울이 31.0%, 경기도가 23.0%(’25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그러므로 경기도의 1/4분기 높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증가율은 운수·창고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되고, 이는 경기도의 내수경기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는 전국 취업자는 금년 1/4분기 2.2% (24만9천명) 증가로 지난 4/4분기(3.1%, 35.2만명 증가)와 유사하나, 경기도는 지난 4/4분기 0.5%(1.7만명) 증가에서 1/4분기 $\Delta 0.8\%$ ($\Delta 2.4$ 만명) 감소로 전환
 -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과 더불어 경기도 1/4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주요인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업, 특히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회복지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공공수요에 의하여 증가폭이 결정되는 추세가 경향이 있음
 - 전국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전년비로 (’25.2/4) 222천명→(3/4) 290천명→(4/4) 261천명→(’26.1/4) 25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로도 8.5% (’26.1/4)로 매우 높은 수준
 - 이밖에 스포츠·여가 산업도 취업자 증가율이 10.2%로 매우 높지만 스포츠·여가는 그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9%에 불과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낮음
 - 1/4분기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증가(25.5만명)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체 증가(전년비 24.9만명)보다 많아 보건·복지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내수 호전으로 부동산업도 취업자 증가율이 6.4%(3만3천명)로 취업자 증가에 기여

<표 3-6>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비, %)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2026	비중*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국 사업·개인·공공	0.2	1.3	2.0	3.1	4.0	4.1	3.1	2.2	40.9
부동산	-2.8	-4.7	0.8	-1.2	-0.4	6.5	1.5	6.4	1.8
전문·과학·기술	2.0	5.2	5.7	5.1	7.9	3.5	-1.3	-6.0	5.1
공공·행정	1.5	2.8	2.7	4.1	2.6	0.1	-0.1	-3.7	4.6
교육	-2.7	0.4	4.5	2.3	3.7	2.4	0.7	2.0	6.8
보건·복지	3.6	2.9	2.4	6.2	7.4	9.6	8.9	8.5	11.0
스포츠·여가	1.9	3.1	0.6	2.8	1.1	7.5	12.1	10.2	1.9
개인서비스	0.1	-0.3	1.2	2.1	2.0	1.1	-0.1	0.0	4.0
경기 사업·개인·공공	-1.2	0.9	1.6	3.4	4.3	2.7	0.5	-0.8	40.2

* 전산업 취업자 대비(%), '25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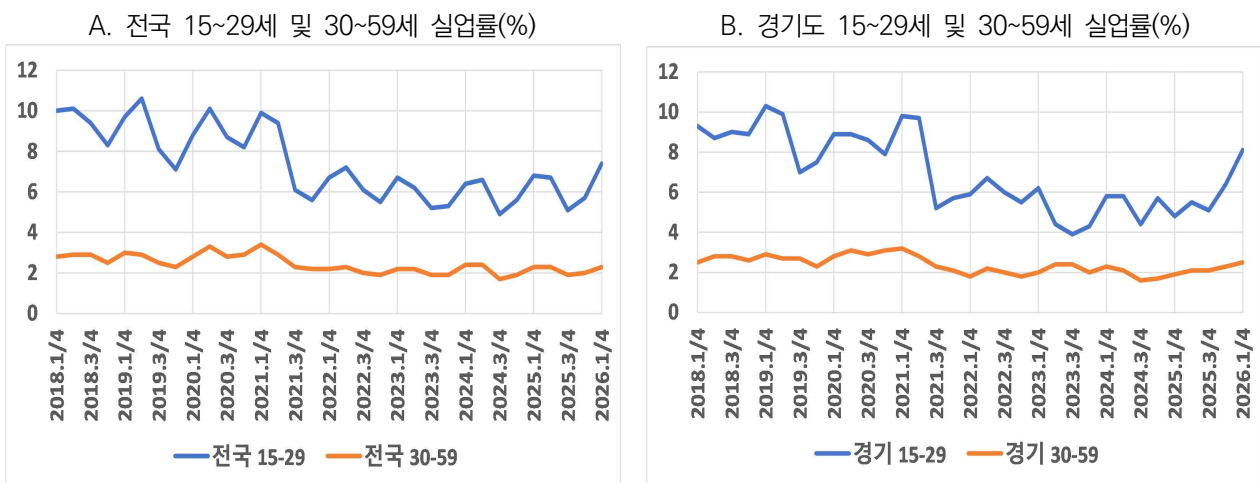
- 경기도 1/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비 $\Delta 0.8\%$ ($\Delta 2.4$ 만명)로 오히려 감소하여 작년 4/4분기 0.5%(1.7만명) 둔화에 이어 추가 감소
 - 경기도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는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발표되지 않으며, 대신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지난 '25년하반기(10월)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25년 하반기에는 보건복지에서는 전년비 4.9만명이라는 작지 않은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개인서비스($\Delta 2.2$ 만명), 교육서비스($\Delta 1.7$ 만명), 전문과학기술($\Delta 1.3$ 만명)에서 감소하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체로는 전년비 1.2만명 증가
 - '26년 1/4분기에 경기도의 내수산업 경기는 양호하였으므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감소하였다면 지역별고용조사의 '25년 하반기 조사결과와 같이 개인서비스, 교육, 전문과학기술업의 저조한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전문·과학·기술은 1/4분기 전국 취업자도 감소하였고 ($\Delta 8.8$ 만명), 정보통신 취업자도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는 전문과학기술 비중이 높은 만큼 1/4분기에 상당폭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개인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내수경기 민감 산업인데 내수는 양호한 만큼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 '26년 1/4분기 경기도 고용의 특이점 중의 하나는 청년(15~29세) 실업률의 대폭 상승

○ 경기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25.1/4) 4.8% → ('26.1/4) 8.1%로 대폭 상승하여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그림 1B]

- 반면, 다른 연령계층에서는 실업률의 큰 변화는 없음

○ 경기도 청년(15~29세) 실업자도 ('25.1/4) 52천명 → ('26.1/4) 85천명으로 증가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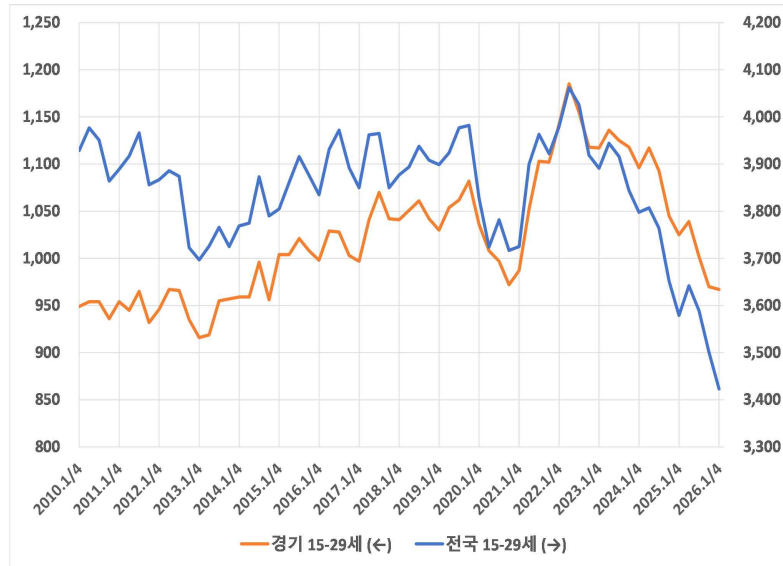
[그림 1] 전국과 경기도 청년(15~29세) 및 기간연령층(30~59세) 실업률: 2018.1/4~2026.1/4

□ 청년(15~29세) 취업자수도 1/4분기 전국과 경기에서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

○ 경기도 청년 취업자수는 967천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그림 2]

○ 전국 청년 취업자는 지난 15년간 370만명~400만명 수준이다가 '26년 1/4분기 342만명으로 급감하였으나, 경기도는 동기간 95만명에서 115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1/4분기 2014년 수준인 97만명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일자리 사정은 경기도가 전국보다는 양호

○ 1/4분기 청년고용감소는 산업별로는 숙박음식, 정보통신, 제조업 등이며, 직업별로는 준전문직, 사무직, 기능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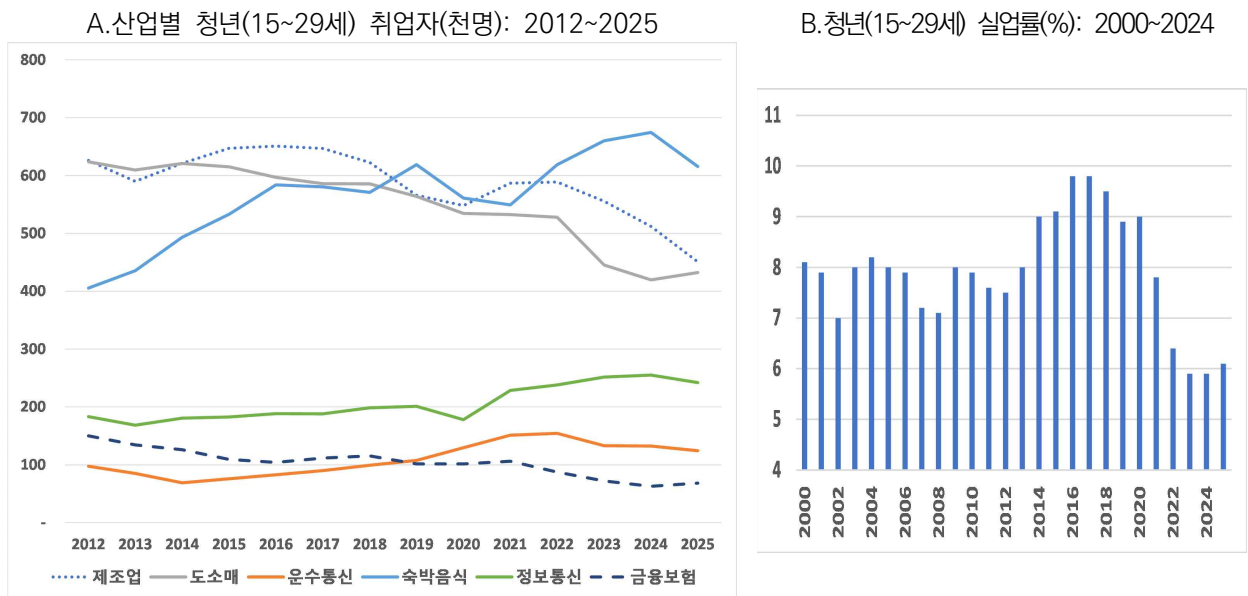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전국과 경기도 청년(15~29세) 취업자수(천명): 2010.1/4~2026.1/4

-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26년 1/4분기에 대폭 상승하였으나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며, 최근('22~'25년) 경기도 청년실업률이 전국보다 낮았던 관계로 1/4분기의 상승폭이 다른 시도보다 큰 것임
- '26년 1/4분기 경기도 청년(15~29세) 실업률은 8.1%로 전국 평균(7.4%)과 비슷하나, 전국은 작년 1/4분기 6.8%에서 금년 1/4분기 7.4%로 소폭 상승한 반면 경기도는 동기간 4.8%에서 8.1%로 대폭 상승
-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경기도의 최근 변화는 청년실업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청년실업을 낮게 유지한 요인들이 사라졌다는 점임
- 다른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경기상황에 따라 등락하는 경기지표의 특징을 가지는 데에 비하여,²⁾ 청년실업률은 청년들의 '졸업 후 취업'의 구조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짐[그림 3B]
- 1)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과정은 과거 '질서정연한 행진'이 큰 특징이 있음. 학교 졸업 후 직장에 입사하여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다음 단계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하였음

2) 기간연령층(30~54세) 실업률은 전체근로자보다 경기사정에 따라 실업을 자주 경험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청년층에서는 모든 청년이 '졸업 이후 취업' 과정에서 실업을 경험하므로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하여 실업률이 결정되고 장기적으로 변화함.

- 2)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여 기업 공채 등 입사 기회가 줄어들자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 혹은 대기하는 기간이 연장되어 청년실업률이 상승하였으며, 2016년 1/4분기 11.3%로 정점에 도달
- 3) 이후 청년들이 변화하여 다양한 직장과 취업 경로를 선택하면서 청년실업은 감소하였으며 2020~21년 코로나로 인한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하여 약 6%까지 하락



자료: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청년(15~29세) 산업별 취업자와 실업률 추이

- 최근 청년실업률은 경제환경의 변화보다 청년들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하였다고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음
 - 첫째,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업난이 지속되자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으로 전환하여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률이 하락하였다는 설명³⁾
 - 둘째, 디지털 채용 플랫폼의 발전: 모바일 채용앱, AI 매칭 기술 도입으로 구인·구직 연결 효율성이 2015~25년간 11% 향상하여 실업률 하락 폭의 23~45%을 설명⁴⁾

3) 20대에서 ‘구직’ 대신 ‘쉬었음’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2015~25년 기간중 3.6%에서 7.2%로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쉬었음’은 실업이 아닌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됨(김지연,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KDI, 2025.11.). 청년들의 실제 행태의 변화가 아니라 자존감에 의하여 응답이 변화하였다는 견해도 존재함.

4) 위 KDI 보고서.

- 셋째, 코로나 이후에는 청년들이 '취업 대기'를 하지 않고 내수 직결 업종(식당, 카페 등)으로 집중하여 숙박·음식점 청년취업이 크게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⁵⁾: 2015~25년 추이를 보면 청년층의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취업은 감소하였으나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 취업이 크게 증가[그림 3A]

□ 그러나, '26년 1/4분기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분명히 청년 취업자 감소의 결과

□ 최근의 청년실업 상승이 인공지능(AI)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현재 일자리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⁶⁾

- 해외 테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를 대량 감원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래머의 '세대교체'일 뿐, 전체 프로그래머 인력을 줄이는 시도는 아님
- ChatGPT(2022.11)는 상징적인 'AI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만큼 발전된 AI가 아니며, 클로드(2025.2)부터 인간의 프로그래밍 작업을 일부 대체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초보적 수준으로 인간 노동을 본격적으로 대체하지는 못함
- 최근(2025.11~2026.1) 미국, 영국, 독일, 호주의 중앙은행이 약 6천명의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자들은 향후 3년 이내 AI가 생산성이나 고용에 미칠 영향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⁷⁾
- 다만 인공지능(AI)은 중장기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십 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직업 구조에도 향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5) 한겨레신문, 「역대 최저 청년실업률의 비밀...오토바이 팔고 식당 알바로」, 2023.5.3.

6) The Economist (2026.4.18.) 보도, "The tech jobs bust is real. Don't blame AI (yet)," p.73.

7) Ivan Yotzov 등, "Firm Data on AI," NBER working paper 34836, March 2026.